

마데레스



표어 : 너나 잘하세요

은석교회는



교회를 나의 자존심으로 삼지
않으며 오히려 그 자존심조차
악으로 규정하며 스스로를
비관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고 진심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교회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형통과 축복을
바라보지 않으며 오로지
불쌍한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열망으로만
모이기를 힘씁니다.

이 느낌으로 살아볼 일이다

신윤식

삶의 목직한 무게에 눌러
어찌할 수 없어
변변한 저항도 못하고
땅 꺼질 듯 깊은 한숨과 함께
걸어가는 길 위에
쌓았다가 무너졌다가 하면서
아쉬운 날들로 사라져 간다.

지나온 날 뒤를 돌아보면
모두가 잡히지 않는 허상일 뿐인데
그런 줄 알면서도 거품이 되기 싫어
여전히 가쁜 숨 몰아쉬며
더 많은 것 쥐어 보겠다고
허공을 휘저으며 달려가는
가련한 모습이다.

공기가 밀어내는 대로
푸른 하늘 노니는 구름처럼
그렇게 살아보고자 하는
가벼운 느낌 하나
하늘을 바라보며 오는 날들
이 느낌으로 살아볼 일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은석교회

교회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113-8

홈페이지 : <http://www.onlycross.net>

☎ (교회) 421-9049 (사택) 425-9049 (핸드폰) 010-5831-9049
(E-메일) sys5806@hanmail.net

발행인 신윤식 목사

발행일 2013.10.27

발행호수 제21권 43호

본 문은 드러난 내용만 보면 용서의 덕목을 가르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용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귀한 가치를 지닌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다움을 보여주는 중요한 덕목으로 요구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처럼 사소한 일에도 분노하고 참지를 못해 폭력과 심지어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현실을 접하면서 서로에게 용서가 필요한 사회라는 것에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잘못을 범하는 일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아마 지금까지 누군가에게 잘못을 범한 적이 한번도 없었다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자신이 누군가에게 행한 잘못은 생각하지 못하고 다른 누군가가 나에게 행한 잘못만 기억합니다. 나도 다른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존재일 뿐이라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입은 마음의 상처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오지만 서로 마음을 문을 닫고 대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함께 모이는 곳에서는 팔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무리 신앙인들의 모임이라고 해도 갈등과 다툼과 분열은 멈추지 않고 여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의 관계에 있다고 하면서 항상 나타나는 것은 서로 견제하고 실수하고 비난의 모습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교회를 이상적인 시각에서 바라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전히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문제 있는 인간의 모임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세상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문제는 교회에서도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도 하나같이 인간이 지니고 있는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문제없는 인간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드러난 모든 문제를 안고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

주일오전설교
눅 17:1-4

용서하라

은 누구를 탓하거나 판단하고 비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비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잊고 있던 우리의 잘못됨에 눈을 뜨는 것이 필요할 뿐입니다.

나의 문제에 눈을 감고 있으면 항상 ‘당신은 왜 그런가?’ 라는 비난만 일삼게 되지만 나의 문제에 눈을 뜨게 되면 ‘내가 심판 받아야 할 존재구나’ 라는 고백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신자입니다. 때문에 교회는 문제없는 교회됨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문제 있음을 인식하는, 즉 자신에 대해 눈이 열리는 것을 지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서 자신을 실족하게 된 작은 자로 생각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사람은 자신을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존재로 생각하기 보다는 타인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다는 생각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타인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 상처를 받는다고 생각할 뿐, 자신이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고 상처를 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외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넘어지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고 하십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팔히 있을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작은 자 중의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을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라고 하실 정도로 중대한 문제로 말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작은 자 중 하나의 실족에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중요한 문제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작은 자를 무시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너는 없어도 되는 존재다’ 는 시각이 살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없어도 되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천국은 당연히 들어가지 못할 존재로 여겼고 오로지 저주를 받아 지옥에 들어갈 자로만 여겼기에 그들

이 어떤 상처를 입든 관심두지 않고 경멸했습니다. 하지만 천국은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해서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외적 조건으로 본다면 부자는 복을 받은 사람이고 나사로는 저주 받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천국에 해당되는 것은 부자이지 나사로가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하지만 나사로처럼 멸시와 고난과 천대 받는 자리에 있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세상에서의 삶의 형편이나 모습과는 무관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높고 낮음의 차별이 없습니다. 목사, 장로, 평신도라는 직분의 구별이 없고 부자 가난한 자라는 차이도 없고, 행함에 따라 차별 대우를 하는 곳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높임 받았던 모든 조건들이 천국에서는 무시 됩니다. 오히려 그런 조건을 기준 삼아서 자신을 높이고 상대적으로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야말로 스스로를 지옥으로 이끄는 것임을 경고하신 것이 부자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이 말씀한 작은 자는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잃은 드라크마 하나, 돌아온 탕자, 나사로로 비유하여 이야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작은 자는 세상의 시각과 기준에서 볼 때 무시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일컫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작은 자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작은 자를 무시하고 실족하게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늘 타인을 세상과 동일한 기준과 시각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교회로 모였다고 하면서도 이 기준과 시각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세리와 죄인을 대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노골적으로 누군가를 무시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바리새인과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다르다' '나는 아니다'는 이 생각이 이미 타인과 자신을 차별하고 있는 사고방식일 뿐입니다.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외적으로 드러나는 훌륭한 인격의 내면에 바리새인의 사고방식이 잠재하고 있는 것이 인간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시각에는 죄인 한 사람이 소중합니까,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흔아홉이 소중합니까? 우리가 이미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의인 아흔아홉보다 죄인 한 사람의 회개로 더 기뻐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천국의 특성을 알지 못하고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천국은 죄를 용서 받은 자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은혜만이 높임 받습니다. 이런 점에서 죄인의 회개는 자신의 죄를 보면서 용서 받을 자로 주께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의 용서만을 높이게 되지만 의인 아흔아홉은 회개할 것이 없을 정도로 그 행위가 완벽했기에 용서가 아닌 자신의 행함으로 천국에 들어간다고 여길 뿐입니다.

이것이 천국이라는 것을 3,4절에서 용서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일곱 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고 말씀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의 특성은 용서 받은 자만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은 용서 받아야 할 존재라는 뜻이 됩니다. 즉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본성은 나 스스로를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형제가 죄를 범하면 경고 해주는 것이 나의 의무고 형제 사랑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형제가 죄를 범했다면 경고해주는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 또한 경고를 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한다면 그것은 죄를 범하며 산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 늘 형제로부터 경고를 받아야 하고 그 경로를 통해 회개해야 하는 위치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면서도 누군가가 죄를 경고하면 발끈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서도 타인의 죄는 경고하려고 하는 것이야

말로 ‘나는 너와 다르다’는 바리새인의 사고방식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가운데 늘 바리새인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형제의 죄에 대해 경고할 것을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자의 세계가 어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용서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용서를 모르는 사람이 모인 것이 아니라 용서를 아는 사람이 모인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세계를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신앙의 세계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신앙의 세계를 말씀을 실천하는 행함의 의를 쌓아가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오해입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가 이런 오해 속에서 행함의 의를 쌓기를 선행하고 많은 사람이 행함이라는 무거운 짐을 진 채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경고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은 용서의 세계에 들어와 있는 것임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그들의 의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9장에서 ‘누가 크냐’라는 문제로 변론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일어나 행함의 경중을 따져 서로를 비교하고 더 큰 자로 여김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2장에 보면 또 다시 이 문제로 다툼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부각되고 싶은 것이 뿌리깊이 자리한 인간의 속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곱 번 죄를 지었다고 해도 돌아와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는 것은 용서를 실천하라는 의미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신자는 용서 하는 자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과연 인간이 하루에 일곱 번씩 용서 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과 함께 용서의 실천에 회의감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모든 죄를 용서할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용서할 것을 가르치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을 인간에게 맞춰 해석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일곱 번 죄를 지었다고 해도 회개한다면 그 모든 죄가 용서되는 것이 예수님의 세계입니다. 그만큼 회개는 예수님의 세계에서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죄를 회개한 자라는 의미가 됩

니다. 우리가 서로 자기의 죄를 알고 죄를 회개한 자로 예수님께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의 죄를 알고 회개하는 그 사람에게서 용서가 나와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가 용서하는 것은 실천이 아니라 예수님의 용서를 앞으로 인한 열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용서 받은 사람만이 모인 곳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여러분이 천국 백성이라면 그것은 자기의 죄를 알고 회개한 자로 예수님께 나왔음을 의미한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이처럼 우리는 용서의 세계에 들어와 있고 용서를 증거하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서보다는 갈등을 그대로 유지한 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면서 자기 의, 자기 정당성만을 내세우는 우리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형제의 잘못도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당신은 왜 당신의 잘못을 말해주면 인정하지 않느냐?’는 질책만 일삼을 뿐입니다. 이것은 분명 용서의 세계와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용서로 살고 있습니다. 즉 우리 모두가 용서 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시각은 예수님의 세계와는 맞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 할 죄인으로 함께 하고 있음을 생각한다면 주님의 용서의 능력이 우리를 용서하는 관계로 세워 가실 것입니다.

에 스겔 48:35절에 보면 ‘여호와 삼마’(여기 계시는 하나님)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 삼마는 여호와 이레(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넷시(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여호와 살롬(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등과 함께 기독교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름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유다 백성에게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이 계시된 것은 그들이 있는 곳에 여호와가 계시고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승리와 평

주일오우설교

시 137:1-9

바벨론에
앉아서

(141강 10.6일 설교)

화와 소망과 기쁨이 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은 유다가 무너지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약속으로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삼마가 진심으로 소망과 위로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여호와가 자신들이 있는 곳, 즉 바벨론에서 고통을 겪는 그곳에 계신다는 것이 믿어져야 합니다. 이 믿음이 쉽지 않다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시 137편도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라고 말합니다. 포로 생활을 하면서 바벨론의 강변에 앉아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의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처지에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자신들이 처한 처지를 보면 하나님은 자신들에게 함께 하지 않으신 것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예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부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이 있습니다. 도무지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137편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다고 말합니다. 수금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용하는 악기입니다. 그것을 버드나무에 걸었다는 것은 노래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그 이유는 3절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고 합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잔치를 베풀어 즐기면서 유다 포로를 데려다가 자신들의 흥을 위해 노래를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온의 노래를 부르라고 한 것을 보면,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망하고 포로가 된 유다를 조롱하기 위한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노래 부르는 것을 거부한다면 또 다른 고초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온 처지에서 바벨론 사람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다면 분명 그에 따른 보복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잔치 자리에 포로를 데려올 정도라면 바벨론에

서 귀족이나 높은 위치의 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노래를 거부하기보다는 그들 요구대로 노래를 불러서 그들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앞으로의 생활을 좀 더 편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 버림으로 노래 부르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앙하는 길을 택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와 노래를 부를까” (4절)라며 노래 부르는 것을 거부한 이들의 심정을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라도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라도”** (5,6)는 말로 표현합니다.

이방 땅에서 여호와와 노래를 부르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이방인의 즐거움을 위해 부르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고, 또한 자기 안위를 위해 이방인에게 굴복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부를 바에야 차라리 오른손으로 수금을 탈 수 없게 되는 것이 낫고, 노래를 부를 수 없도록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리는 것이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저자는 자신의 기억에서 예루살렘이 잊혀지지 않는 것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시온, 즉 예루살렘을 기억한다는 것은 단지 자신들이 거주했던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을 기억하고 추억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시온에서 베풀어지는 여호와와 은총을 기억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온은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은총이 베풀어지는 거룩한 곳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예루살렘과 거룩한 성전까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성전의 기구는 약탈당했고 많은 백성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처지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고 신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처한 처지를 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만 뜻을 둘 때만 가능한 믿음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저자에게서 이 믿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 그랄 땅에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일이 있습니다. 그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라고 말미암아 자신을 죽일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주어진 환경과 처지만을 보며 자기에 게 유리한 길을 가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시편 저자도 얼마든지 주어진 처지에서 바벨론 사람의 기쁨을 위해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그것이 육신을 위해 도움이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자는 바벨론 보다는 자신이 예루살렘을 잇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알팍한 수준에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마치 바람 부는 대로 고개를 숙이는 갈대처럼 주어진 현실에 맞게 오직 육신의 유리함을 추구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실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가 과연 저자가 예루살렘을 기억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을 기억하는 신자로 산다고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자는 7절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해 달라 하고 에돔 자손을 치시기를 구합니다. 에돔은 바벨론 족속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도 바벨론을 저주하고 9절에서는 “네 어린 것들을 바위에 매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다” 는 말을 합니다.

어린 것들을 바위에 매어친다는 것은 사 13:16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짓밟는 것처럼 바벨론을 철저히 짓밟고 무너뜨리겠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보면 저자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이 실현되는 것을 소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이 처한 처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실행된다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이것이 힘이 되어 두려움 없이 노래 부르는 것을 거절 한 것입니다. 육신이 처한 현실은 바벨론에서의 고통이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참된 현실은 바벨론의 멸망과 유다의 회복임을 바라본 것입니다.

말씀이 마음이 기억되어 있는 신자에게 현실은 하나님이 이루실 말씀의 세계이지 육신이 처한 현실이 아닙니다. 말씀 안에 있게 되면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통으로 인해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심과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이 여러분의 심중에 기억되고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만 신뢰하기 바랍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말하지만 결국 그 뜻조차도 자신에게 유리한 길로 실행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자기중심의 세계에서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러한 인간의 실상이 여실히 드러나 있습니다. 42장에 보면 요하난과 군대 지휘관과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자신들의 갈 길과 할 일을 보여줄 것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들이 할 일은 선지자가 전한 말대로 애굽으로 가는 길을 중지하고 유다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들은 기도를 부탁하면서 말씀이 자신들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순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말씀을 듣자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선지자의 말을 거짓말로 치부하는 것입니다.

2절,3절을 보면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를 부추겨서 자신들을 바벨론에 넘겨 죽게 하고 붙잡혀 가게 하려고 거짓말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바룩은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지만 선지자는 아닙니다. 따라서 무작정 예레미야의 말을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보다 선지자가 아닌 바룩의 부추김에 넘어가 거짓말 하는 것으로 몰아가는 것이 예레미야의 말을 부정하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을 거짓말로 치부하는 것은 애굽으로 가겠다는 자기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애굽으로 가고자 하는 것은 유다에 남아 있게 되면 바벨론 군대에 붙들려 죽거나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에서는 애굽이 살 길이요 유다는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때문에 애굽으로 가지 말고 유다에 머물라는 것은 자신들을 죽음으로 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말씀이 자신들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순종하겠다고 하였으면서 막상 자신들을 죽음으로 인도하는 듯한 말씀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것입니다.

수요일설교

렘 43:1-7

말씀보다 애굽

(96강 10.23일 설교)

이처럼 애굽으로 가고자 하는 뜻을 포기하지 않을 거 라면 애당초 예레미야에게 자신들이 갈 길과 할 일을 보여 달라는 기도를 부탁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들이 원한 말을 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신들이 사는 길은 애굽이기 때문에 애굽으로 가라고 하실 것이고, 애굽에 가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 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실 것으로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의도로 어떤 말씀이든 순종하겠다고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틀 안에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세상 모든 일을 주관하는 분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현실에서 도와주는 존재로만 여기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처한 모든 현실조차 하나님의 주관으로 된 것임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시면서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셔서 구원하시고 그들 손에서 건져 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벨론 왕의 힘을 두려워했을 뿐 바벨론 왕까지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눈을 뜨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에게 좋은 싫든 순종하겠다고 한 것도 자신들의 믿음을 보여주기 위한 수단이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든 순종하겠다는 믿음과 각오를 보여주면 하나님도 그런 자신들을 기뻐하시며 자신들의 뜻대로 원하는 말씀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했을 수 있는 것입니다.

42:20절에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고 말씀합니다. 애굽으로 가겠다는 생각을 포기할 뜻이 없으면서도 갈 길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모든 것이 스스로의 마음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서 행해지는 기도의 실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뜻을 위해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합니다. 여러 분이 생각하는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물론 우리가 처한 형편이나 처지가 아버지의 뜻의 전부

는 아닙니다. 유다가 멸망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하나님은 유다를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 죄를 알게 하시고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는 백성이 되게 하는 것에 뜻을 두셨습니다. 멸망은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이고 도구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현재 자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에 의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렇다면 기도는 지금의 형편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나아지는 것에 뜻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도우심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 위에 설 수 있기를 도와달라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나의 뜻을 포기할 생각이 없이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자기 기도의 정당성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맡겼다고 하면서도 은연중에 자신이 생각하는 우 리한 길로 인도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낙심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요한과 그의 무리들은 선지자와 바룩까지 데리고 기어코 애굽으로 갑니다. 이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 다 비네스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고 합니다(9절). 그리고 하나님이 바벨론 왕으로 하여금 애굽을 치게 하시고 왕좌를 예레미야가 감추어 놓은 큰 돌 위에 놓고 그 위에 화려한 장막을 치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벨론이 애굽을 친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알게 하심으로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세상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습니다. 따라서 신자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삶에 대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는 내 뜻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의 높으신 생각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지금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갈 길은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 마음을 두고 예수님에게로만 향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 오전예배 ■

11시 / 인도 신윤식 목사

묵상기도 : 다 함 께
 신앙고백 : 다 함 께
 찬 송 : 64장
 교 독 : 85(요일4장)
 기 도 : 이영민 장로
 찬 송 : 388장
 성 경 : 눅 17:1-4
 말 씀 : 용서하라(82강)
 기 도 : 설 교 자
 찬 송 : 208장
 교회소식 : 이영민 장로
 찬 송 : 5
 축 도 : 설 교 자

■ 오후예배 ■

2시 20분 / 인도 신윤식 목사

신앙고백 : 다 함 께
 찬 송 : 324장
 기 도 : 송재관 집사
 찬 송 : 433장
 성 경 : 시 139:1-10
 말 씀 : 나를 아시나이다(143강)
 기 도 : 설 교 자
 찬 송 : 570장
 주기도문 : 다 함 께

■ 수요일예배 ■

7시 30분 / 인도 신윤식 목사

예레미야 강해(97강)

■ 교회소식 ■

1. 10월 31일(목)오전 11시에 은석교회당에서 동부노회 권사회 모임이 있습니다.

●
 다음주 기도

오전 - 조규현 장로 오후 - 조순자 집사

이단 54

많은 이단들이 기존교회를 비판하면서 기존교회에서 독립하여 자신들의 단체를 설립하고 정당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기존교회를 비판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은 아니다. 분명한 것은 교회는 늘 비판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회를 비판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이다. 다시 말해서 교회로 모이는 성도는 언제나 말씀 앞에서 비판을 받음으로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말씀 앞에서는 그 어떤 존재도 자신이나 인간으로 구성된 단체를 정당하다고 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제 아무리 보기 좋은 제도나 형식을 갖추고 있는 단체라 해도 죄 있는 인간의 모임인 이상 정당한 곳은 없기 때문이다.

가령 지구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건전하고 성경적인 복음을 받아들이는 교회가 있다고 하자. 과연 그 교회를 정당하다고 할 수 있을까? 당장 눈에 드러나는 모습으로는 정당한 교회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안에도 시기, 탐욕, 불의, 더러움, 분열은 있다. 다만 그러한 인간 내면의 악한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있을 뿐이지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그 정체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 인간의 실존이다. 그래서 교회라면 늘 말씀으로 인해 비판을 받는 그것이 정당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대개는 기존 교회의 제도나 형식, 드러난 폐해들을 비판하며 이탈함으로써 마치 자신은 정당한 것처럼 보이려고 한다. 이것이 대다수 이단들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속은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수장은 다르다는 인식을 하게 되고 결국 그 집단에 속한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기독교인이 경계해야 할 내용이 아닐 수 없다. 즉 '내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는 다르다' '내가 다니는 교회는 다르다' 는 생각을 늘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어떤 목사가 진심으로 복음만 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능력의 결과인 것이지 그 목사가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이미 언급한 것처럼 교회가 아무리 다르게 보인다고 해도 그것은 제도와 형식, 분위기의 차이일 뿐이지 인간이 다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성도가 이점을 잊지 않는다면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볼 수 있고, 잘못된 가르침 또한 바르게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 교회를 비판하고 이탈하여 독립적인 단체를 세운 분파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지방교회' 다. 이들은 '교회는 우주적인 면에서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요 인간 사회에서 나타날 때에는 한 지방, 한 교회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각 교회는 지방 이름을 붙여 단순히 ○○교회가 아니라 어떤 교파별 명칭을 갖는 것은 죄다' 라고 주장 한다. 이들 교회를 지방 교회라고 지칭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그들 스스로는 자신들을 지방교회로 지칭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 주장과 형태를 따라 외부에서 '지방교회' 로 지칭하여 분리한 것이다. 또한 지방교회는 회복교회라고도 부르는데 그것은 그들이 교회의 본이라고 할 수 있는 초대교회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지방교회의 특징은 각 지역의 명칭을 그대로 교회 명으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교파별 명칭을 갖는 것을 죄로 여기기 때문에 당연히 '대한예수교 장로회' 와 같은 별도의 명칭이 없이 서울에 있으면 서울교회, 대구에 있으면 대구교회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하지만 도시에서 한 교회로만 모이는 것은 당연히 힘든 일이기 때문에 여러 교회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경우에는 '집회소' 라고 지칭한다.